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페루

Republic of Peru

2022년 4월 26일 | 선임조사역(G2) 김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285천 km <sup>2</sup> 	<b>인구</b> 33.8백만 명 (2021 <sup>e</sup> )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경제실리외교 
<b>GDP</b> 2,247억 달러 (2021 <sup>e</sup> ) 	<b>1인당GDP</b> 6,643 달러 (2021 <sup>e</sup> ) 	<b>통화단위</b> Nuevo Sol (Ns) 	<b>환율(U\$기준)</b> 3.88 (2021 <sup>e</sup> ) 

- 페루는 남미 북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및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면적은 한반도의 6배 수준이며, 2021년 기준 GDP(2,247억 달러) 및 인구(33.8백만 명) 규모는 각각 중남미 제6위 및 제5위 수준임.
- 구리, 금, 아연 등이 풍부한 광물자원 부국으로, 원자재 생산·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21년 대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대통령은 두 번이나 탄핵 위기를 맞이하고 국무총리가 3차례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부정부패 만연,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coca)의 불법 재배 및 마약 거래와 관련된 치안 불안, 광산 개발 등과 관련된 원주민 시위 등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안데스공동체(CAN) 등 역내 정치·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고 역내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대상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3. 4. 1 수교 (북한과는 1989. 11. 21 수교)

**주요협정** 사증면제협정(1982),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84), 문화협정(1988), 투자보장협정(1994), 관광협력협정(2003), 범죄인인도조약(2005), 자유무역협정(2011), 무상원조협정(2013), 이중과세방지협약(2014), 형사사법공조조약(2016), 사회보장협정(2019)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743,728	485,263	793,796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수입	2,317,814	2,756,311	3,450,101	천연가스, 동광, 기타금속광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75건, 3,447,357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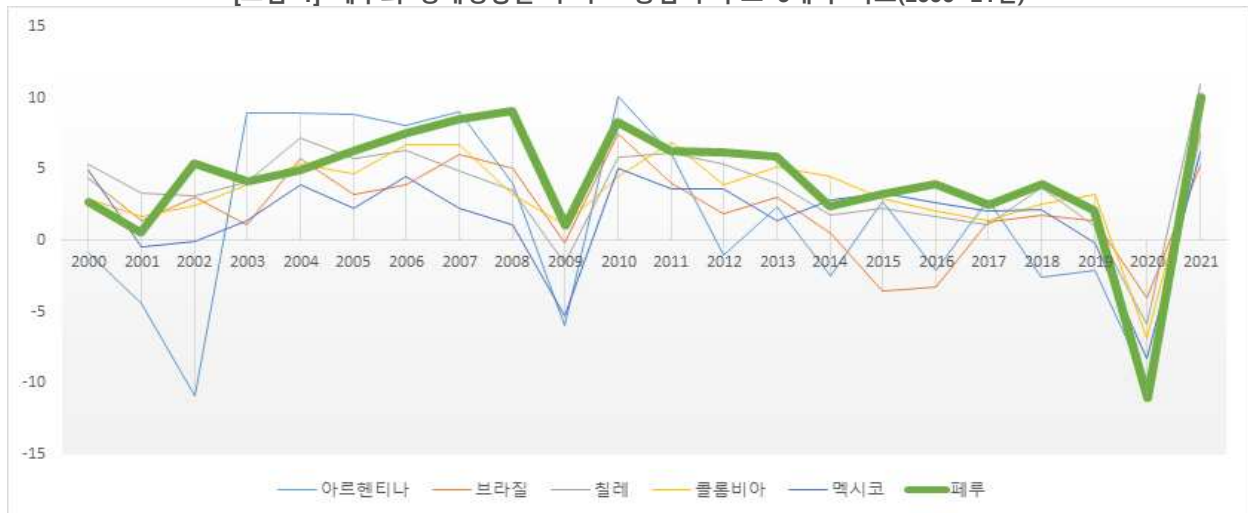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e</sup>
경제성장률	2.5	4.0	2.2	-11.0	13.3
소비자물가상승률	2.8	1.3	2.1	1.8	4.0
재정수지/GDP	-2.9	-2.0	-1.4	-8.3	-2.6

자료: IMF

### 원자재 국제가격 호황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나 정치 불안으로 낮은 성장률 전망

- 페루는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와 달리 집권당의 정치적 노선에 관계 없이 친시장·친기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해 왔으며,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등 투명한 거시경제정책을 토대로 2000년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왔음.
- IMF에 따르면 2000~21년 중 페루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3% 수준으로, 같은 기간 중남미 전체 평균 경제성장률인 2.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페루는 지난 20여년 간 경기 부침을 거듭한 역내 주요국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1] 페루의 경제성장률 추이 - 중남미 주요 6개국 비교(2000~21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 구리, 아연, 금 등 광물자원 수출 비중이 총 상품수출의 59%(2019년, IHS Markit)에 달하며, 전체 GDP에서 광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9%(2019년, Trading Economics)에 이르는 만큼 주요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좌우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2014년 중반부터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페루의 연간 경제성장률도 2014년 이후 5%선을 넘지 못하였음.

## 국내경제

[그림 2] 최근 5년 간 구리 국제가격 추이(미 달러/톤)



자료: LME

- 2019년에는 구리 등 원자재 국제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품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8% 감소한 가운데 제1위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2018년 6.7% → 2019년 5.8%, IMF), 미·중 무역갈등 고조 및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2.2%로 전년(4.0%) 대비 하락함.

\* Trademap에 따르면 2019년 중 총 수출상품의 29.2%, 구리(정광 포함)의 66.7%를 중국에 수출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시작된 대규모·장기간의 봉쇄조치로 광산 개발을 포함한 주요 경제활동이 마비되며 총수출(전년대비 -16.7%) 및 외국인투자 유입액(전년대비 -87.8%, UNCTAD)이 급감하고, 실업 증가(수도 리마 실업률(IMF): 2019년 6.6% → 2020년 13.6%) 및 가계소득 감소로 민간소비(2019년 GDP의 65.7%)도 전년 대비 -8.6%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어 역대 주요국\* 중 최저 성장률(-11.0%)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와 기저효과 등으로 13.3%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중남미 주요국 경제성장률(2020, IMF) : 브라질(-4.1%), 칠레(-5.8%), 콜롬비아(-6.8%), 멕시코(-8.3%), 아르헨티나(-9.9%)

- IMF(2021.3월 Staff Report)는 페루의 산업구조상 관광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주변국 대비 낮은 인터넷 보급률 등 디지털 업무환경 미비로 재택근무 실시가 곤란하여, 정부의 강력한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동시에 경기 침체가 가중되었다고 설명함.

- 전망기관별 편차는 있으나, 페루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3%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EIU는 이동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구리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이 성장을 뒷받침하나 정정 불안에 따른 정부정책 불확실성, 광산 개발 관련 시위 확산 등 사회불안 고조 및 긴축적 통화 정책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높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표 1] 주요 기관별 페루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IMF ('22.4월)	WB ('22.4월)	ECLAC* ('22.1월)	EIU ('22.4월)	Fitch Solutions ('22.3월)	페루 중앙은행 ('22.3월)
2022년	3.0%	3.0%	3.0%	3.1%	3.1%	3.4%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국내경제

### 중앙은행,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대폭 인상

- 페루 중앙은행은 2002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2±1%)를 도입하여 소비자 물가수준을 관리하고 있음. 2020년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 수입가격 하락(2019년 원유·가스 수입액이 총 상품수입의 14.2%, Trademap) 등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연평균 1.8%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소비 증가, 연료 및 식료품 가격 상승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를 초과한 4.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페루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을 위해 2020년 3월과 4월 각각 100bps씩 금리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0.25%)를 책정하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연료 및 식품 가격 상승, 미 달러화 대비 솔(Sol)화 평가절하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자 2021년 8월부터 9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2022년 4월 현재 4.5%까지 상향 조정하였음.
- 페루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2년 3월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6.82%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7월에 하락 전환한 후(2022년 연간 상승률은 3.75%) 2023년 2사분기 혹은 3사분기에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변동환율제를 운용 중인 페루는 투명한 거시경제 정책,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부분적 달러통용화(Dollarization)\* 정책 등을 유지한 결과 미 달러화 대비 솔화 환율이 최근 수년 간 3.3솔/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개도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냉각 여파 등으로 2020년 말 환율은 전년 동기(3.31솔/달러) 대비 9.2% 상승한 3.62솔/달러, 2021년 말에는 10.2% 상승한 3.99솔/달러를 기록하였음.
- \* 페루 정부는 대외충격 방어 및 통화주권 회복 등을 위해 현지화 이용률 확대 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페루 내 달러화 표시자산은 지난 18년 간 금융기관 유동성의 약 65%에서 26.3%, 민간 여신잔액의 약 75%에서 21% 수준으로 감소함(2020.10월 기준).
- EIU는 최근 구리 국제가격 상승, 페루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등으로 2022년 중 솔화 환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2022년 말 환율 3.76솔/달러), 카스티요 대통령의 탄핵 등 정치 불안은 환율의 일시적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한편, 대규모 외환보유액(2021년 말 735억 달러)을 활용한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능력 등을 감안 시 환리스크는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미 달러화 대비 솔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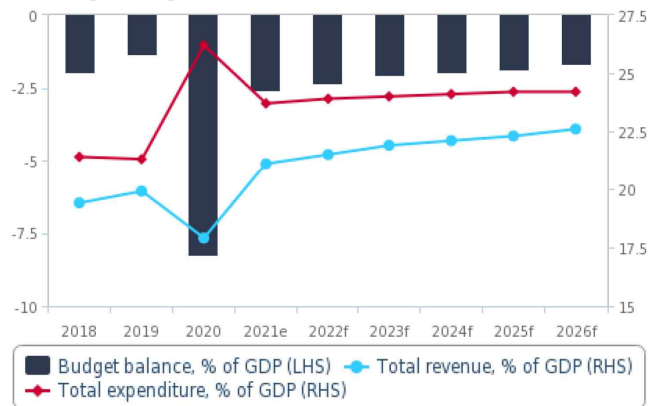


## 국내경제

### 구리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 재정지출 증가 둔화로 재정수지 적자 축소 전망

- 페루 정부는 ①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 30% 이하, ②2021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1% 달성이라는 목표를 명시한 재정특별법 하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2019년 기준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27.1%,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1.4% 수준까지 개선되었음.
- 2020년 재정수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관세·법인세 등 세수 감소,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의 타개를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8.3%에 달하였음. 페루 정부는 적극적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특별법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황임.
- 한편, IMF에 따르면 페루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2021년에 35.9%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할 전망이나, 새 정부의 보건·의료, 교육, 인프라 등의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기초를 감안할 때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에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세수 증가, 경기부양책 규모 축소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2.6%(IMF)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2022년에는 카스티요 정부의 공약사항인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 관련 지출 증가의 변수가 있으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출 관련 세수 증가 등 세수 확충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4%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페루 재정수지 전망(Fitch Solutions)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e</sup>
경상수지	-2,669	-3,916	-2,154	1,583	-3,834
경상수지/GDP	-1.3	-1.7	-0.9	0.8	-1.7
상품수지	7,090	7,201	7,122	8,232	13,302
상품수출	45,422	49,067	48,224	42,941	61,491
상품수입	38,331	41,866	41,101	34,709	48,189
외환보유액	61,425	57,930	64,919	71,442	73,492
총외채	76,499	77,552	80,581	88,285	88,478
총외채잔액/GDP	35.7	34.4	34.9	43.0	39.4
D.S.R.	28.0	18.3	19.2	15.6	13.0

자료: IMF, EIU, OECD

### 본원소득수지 적자 폭 확대로 2021년 경상수지 적자 전환 추정

- 페루 경제는 구리, 금 등 광물자원 수출이 총수출의 약 60%에 달하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로 원자재 국제가격에 따라 상품수지 규모가 좌우되고 있으며, 광산개발 기업 등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과실송금 등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11.0% 감소하였으나,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상품수입도 -15.6% 감소하면서 82.3억 달러 상당의 불황형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이전소득수지는 연 4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침체에 따른 해외 과실송금액 감소로 연간 100억 달러를 웃도는 본원소득수지 적자 폭이 2020년 63.8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는 소폭 흑자 반전하였음.

구분(억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sup>e</sup>
상품수지	70.9	72.0	71.2	82.3	133.0
서비스수지	-18.2	-31.0	-34.4	-43.4	-63.3
본원소득수지	-115.2	-115.7	-95.5	-63.8	-147.3
이전소득수지	35.9	35.6	37.2	40.7	39.2

자료: IMF, EIU

## 대외거래

- 2021년에는 글로벌 교역 재개, 제1·2위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 회복, 구리 국제가격 호조 등에 힘입은 상품수출 증가분(+43.2%)이 내수 회복 및 연료 수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분(+38.8%)을 상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133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단, 연이은 봉쇄조치로 관광업 타격이 계속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기업 과실송금 재개로 2021년 경상수지는 -38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에도 구리 국제가격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되나,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 수준과 유사한 본원소득수지 적자 폭이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는 적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GDP의 -2.4%, EIU).

## 외채상환능력

###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 페루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시장 기조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규모가 최근 수년간 600억 달러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2021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재개(GDP의 약 3.3% 추정, EIU) 및 상품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73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UNCTAD, 억 달러) : 67.4('16) → 68.6('17) → 69.7('18) → 80.6('19) → 10.0('20)
-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11.9개월분 및 단기외채잔액의 7.6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외채 조달능력 등을 감안하면 단기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22년에는 정치 불안에 따른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수출 호조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지속(GDP의 약 2.2% 추정, EIU) 등으로 연말 외환보유액이 75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EIU).

### 외채구조는 경제규모 대비 비교적 양호한 편

- 페루 정부는 쌍둥이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외채잔액이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과 국제시장에서의 우호적인 차입 여건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9년 34.9%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페루 총외채의 84.8%가 중장기 채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2020~21년에는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한 긴급자금 조달 및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각각 43.0%, 39.4%(잠정)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GDP 규모 증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등에 힘입어 동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5년에는 37.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IMF, 2022년 3월).
- 최근 구리가격 상승에 따른 총수출 증가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5% 미만으로 안정되었으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수출이 급감한 2020년을 제외하고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채상환능력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e</sup>	2022 <sup>f</sup>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151.3	104.9	110.5	74.2	86.1	92.5
D.S.R.(%)	28.0	18.3	19.2	15.6	13.0	13.0
총외채잔액/총수출(%)	141.6	135.1	140.2	185.1	133.4	124.0

자료: OECD, EIU

### 공적채무 비중은 낮은 편으로, IMF는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IMF('22.3월)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재원 확보 등으로 인해 페루의 GDP 대비 공적채무(국내채무+국외채무) 및 공적외채 비중은 2019년 27.1%, 8.5%에서 2020년 35.1%, 14.9%, 2021년 35.9%, 1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단, 페루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동일 신용등급(Fitch, BBB등급) 국가의 중위값인 36.1%와 유사한 수준이며, 역내 주요국과 비교 시에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 공적채무/GDP 비중(2021년<sup>e</sup>, IMF) : 칠레(33.9%), 멕시코(59.8%), 콜롬비아(64.6%), 브라질(91.6%), 아르헨티나(80.6%), 중남미 평균(72%, 2020년)
- IMF는 2021년 3월 보고서(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 양호한 채무상환 실적, 국제신용평가 3사의 투자적격등급 유지 등을 감안 시 페루의 공적채무는 높은 확률로 지속 가능하다고 분석함. 또한, 현지 자본시장이 성숙하여 공적채무 중 외채 비중이 약 40%로 높지 않은 점, 대부분의 채무가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되어 금리 리스크 노출 위험이 작은 점, 채권 평균 만기가 28.4년(페루 중앙은행 기준)으로 매우 장기인 점 등은 채무상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 단, 채권자 중 비거주자 비중이 39%에 달하고, 재정수입 대비 공적채무 비중이 182%(Fitch, BBB등급 중 위값 139%)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향후 채무상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구조적취약성

###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경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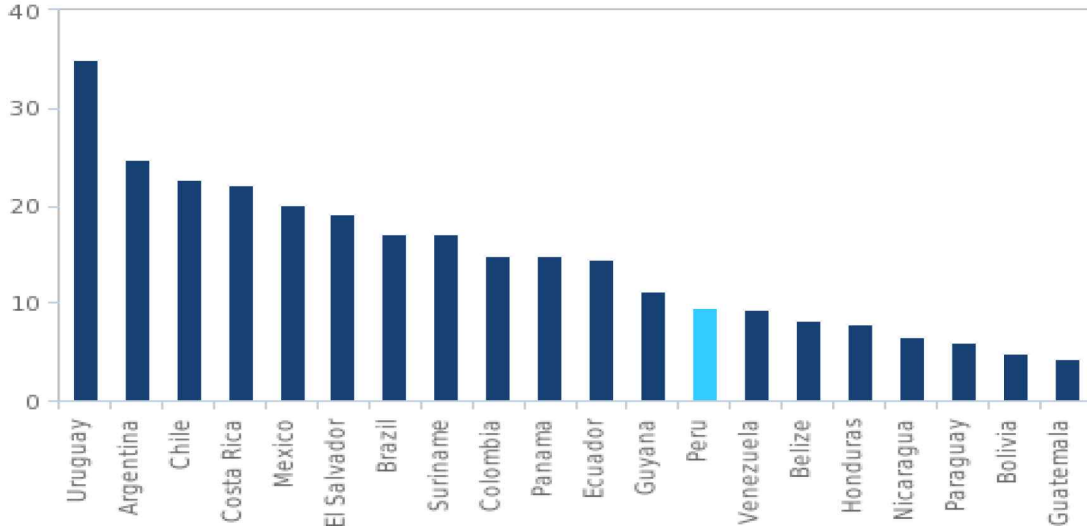
- 페루는 광업이 경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2019년 기준 광물자원 부문이 GDP의 9%, 상품수출의 59%,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 금, 아연 3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광물자원 수출의 약 82%에 달함.
- 원자재 국제가격이 하락했던 2014년 중반 이후 페루는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보였으며, 2018년 경제성장률 소폭 반등 이후 2019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세와 동반하여 경제성장률이 재차 하락하는 등 원자재 국제가격과 경제성장률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광업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광업 개발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제구조 다변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인 교통 및 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수준

- 페루는 안데스 산맥이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으며, 산악 지역(30%) 및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14%)이 국토 면적의 40% 이상에 달해 육상교통 인프라 및 통신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로의 86%인 141,557km가 비포장 상태이며, 철도 인프라는 공공철도 1,668km, 광업회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철도 239km 등 전체 1,907km에 불과함.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The Global Competitive Index, 2019년)에 따르면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세부 항목별 순위는 141개국 중 도로 인프라 품질 110위, 철도 인프라 연결성 95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용자(성인 기준)는 전체의 52.5%로 141개국 중 94위에 그쳤음.
- 이에 2019년 페루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교통,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등 우선 추진사업 52건을 발표함(주페루 대사관 자료 인용).
- 동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기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109억 달러), 하수처리(87억 달러), 보건(83억 달러) 등 33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488억 달러), 보건(178억 달러), 통신(62억 달러), 에너지(21억 달러) 등 1,1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매년 GDP의 4~5% 투자 필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은 리마 지하철 3호선(70억 달러) 및 4호선(37억 달러), 중앙고속도로(31억 달러), 쿠스코 도로(1.6억 달러), 안데스 산맥 도로 정비(5억 달러) 등임.
- 한편, 페루의 인터넷 침투율은 주변 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고속 인터넷 연결은 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한편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Fitch Solutions).
- 2021년 1월 페루 교통통신부는 농촌 인구 100만 명에 대한 4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위해 약 15.8억 솔(약 4.1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아울러 모바일 원격통신 서비스 개선에 1.3억 솔(약 3,600만 달러)을 투입하여 240개 지역의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구조적취약성

[그림 5] 중남미 지역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100명 당)



## 성장잠재력

### 성장에 유리한 인구 구조와 역내 평균 대비 저렴한 노동력

- 페루는 총 인구 33.5백만 명(2020년, IMF) 중 66.5%가 생산가능 인구에 해당함.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약 42.6%에 달하며, 특히 14세 이하의 잠재적 노동 인구가 전체의 약 25.4% 수준으로 노동력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음.
- 페루의 최저 임금수준은 월 233달러 수준으로, 이는 양호한 국제 투자신인도, 거시경제 안정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역내 국가 비교 시 에콰도르(424달러), 칠레(411달러), 파나마(365달러) 보다 낮은 수준이며, 멕시코(256달러), 콜롬비아(244달러), 아르헨티나(233달러), 브라질(214달러) 과 유사하여 임금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표 2] 페루의 연령별 인구분포

연령	0~14세	15~24세	25~54세	55~64세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비율(%)	25.4	17.2	41.0	8.3	8.1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2020년 추정치)

- 2020년 기준 페루의 1인당 GNI는 6,030달러로 세계은행 기준 상위 중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ies, 4,096~12,695달러) 수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 리마에 전체 인구의 약 33%(11백만 명)가 밀집되어 있어 소비재 산업 등 내수시장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

### 다양한 광물자원 보유 및 광산업 개발 잠재력 풍부

- 페루는 구리, 금, 아연, 납, 은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감안 시 향후 성장잠재력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됨.
- USGS(미 지질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구리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7,700만 톤, 220만 톤으로 세계 3위 및 세계 2위를 점하고 있으며, 금 매장량(2,000 톤) 및 생산량(87 톤)은 세계 9위 및 세계 11위에 달함. 아울러 은, 납, 아연, 철광석 또한 매장량 및 생산량에서 세계 수위권에 들고 있음.
- 한편, 페루는 중남미 7위(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브라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順)의 천연가스 생산국(2020년 121억 ft<sup>3</sup>, BP)이며, 확인매장량(2020년 9.2조 ft<sup>3</sup>) 기준으로는 중남미 5위를 점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페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광물자원 중 구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페루 정부도 2014년 복잡한 환경허가 절차 간소화,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법을 제정하여 광산 개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일시 중단되었던 광산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구리는 전기장비 및 통신 인프라, 가전제품, 자동차, 건설장비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며, 해상풍력·육상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및 전기차(배터리) 제조에 핵심원료로 투입됨에 따라 향후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페루 정부 자료 인용)에 따르면, 현재 페루에서는 46건(562억 달러 상당)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표 3] 페루의 광업 부문 주요 투자개발 사업(미 상무부 국제무역청, 2021.10월 기준)

투자국	프로젝트 수	비용(억 달러)	투자국	프로젝트 수	비용(억 달러)
영국	케야베코 등 6건	120	페루	6건	43
중국	암필라시온 등 7건	104	호주	2건	37
캐나다	11건	85	브라질	5건	24
미국	3건	72	한국 등	3건	11
멕시코	3건	65	<b>합 계</b>		<b>562</b>

- 한편, 2020년 10월 페루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리튬 및 우라늄 개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페루 남동부에서 캐나다 광산투자 개발 기업(Plateau Energy Metals)과 함께 리튬 및 우라늄 탐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 페루 남동부 푸노 지역에 매장된 리튬은 250만 톤, 우라늄은 1억 2,4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페루 내 방사선 물질 채굴 관련 법안이 부재하여 개발이 지연되어 왔음.
-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인 칠레,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가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를 형성하며 리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페루의 리튬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광산업 발전 경로도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USG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리튬 확인매장량은 총 210억 톤으로, 리튬 삼각지대에 56%가 분포

##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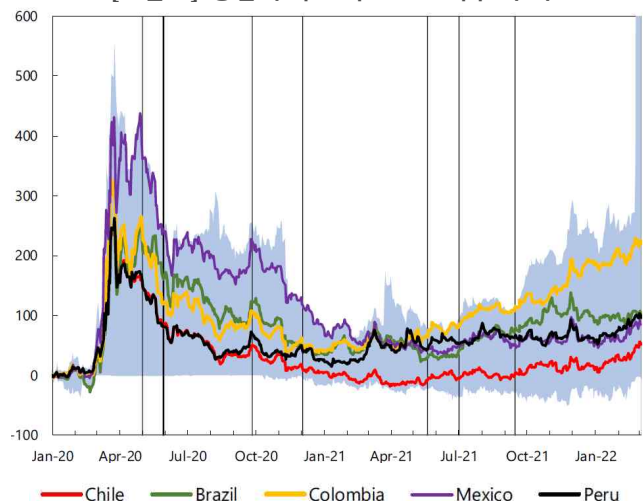
### 꾸준한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기업경영여건 개선

- 페루는 견조한 경제성장, 시장친화적 정책 등에 힘입어 매년 GDP의 약 3%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여건 또한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Ease of Doing Business) 종합순위에서 페루는 2020년 76위/190개국에 올라, 역대 주요국 중 칠레(59위), 멕시코(60위), 콜롬비아(67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 특히 건설 인·허가(65위, 중남미 1위), 재산권 등록(55위, 중남미 2위), 소액투자자 보호(45위, 중남미 2위), 자금조달(37위, 중남미 10위) 등 제반 행정 및 신용 획득 부문은 국제사회 및 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페루 정부는 199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발효한 이후 관세장벽 철폐, 시장 개방 및 거시경제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2년에는 민간투자 촉진·관리 전담기관인 투자청(PROinversion)을 설립하고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PPP 방식의 사업 개발을 추진하여 왔음.
- 1993년 제정된 페루 헌법상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 원칙이 적용되어 외국인은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등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군수물자 제조, 희소자원 개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 한편, 페루 정부는 외환 관련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수익, 배당, 로열티 송금에 제약을 두지 않는 등 외환 안정성 및 투자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다만, Fitch Solutions(22.3월)는 2021년 7월에 취임한 카스티요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에 광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광산업 투자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투명한 경제정책 등을 토대로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 페루는 기업친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국가 주요 산업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바탕으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아왔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2019년)에 따르면 페루는 평가대상국 141개국 중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세계 1위(100점)로 평가받았음. 한편, 2020년 중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 정부와 국회 간 갈등 고조에 따른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 대비 EMBI(신용시장국 채권지수) 스프레드 변동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다만, 2021년 6월에 치러진 대선 투표에서 좌파 성향의 카스티요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슬화는 달려화 대비 2.5% 평가절하되었으며 리마의 주가지수는 7% 이상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혼란한 모습을 보였음.

[그림 6] 중남미 주요국 EMBI 지수 추이



## 정치안정

### 2021년 6월의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페드로 카스티요 후보 당선

- 2021년 6월 6일 실시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급진 좌파 정당인 자유페루당(Peru Libre)의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후보가 우파 성향의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의 케이코 후지모리 후보를 4만 4천여 표의 근소한 격차로 따돌리고 7월 28일 대통령에 취임하였음(득표율은 각각 50.12%, 49.87%). 2021년 4월 11일에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카스티요 후보와 후지모리 후보가 각각 19.1%, 13.1%의 득표율로 1, 2위를 차지하였으나 두 후보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하여 결선투표에 이르게 되었음.
- 결선투표 직후 후지모리 후보가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시행하여 투표일 후 40일 넘게 대통령을 결정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었음. 7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카스티요 후보를 최종 당선인으로 발표하고 후지모리 후보가 이를 수용하면서 혼란이 일단락되었음.
- 급진 좌파 성향의 카스티요 후보는 농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선출직 경험이 없는 사실상의 정치신인으로, 2017년 교원노조 총파업을 이끌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함. 2020년 급진좌파 성향의 군소 정당인 자유페루당에 입당하였고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후보 본인과 소속 정당 모두 정계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아 대선 승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음. 그러나 급진 우파 성향인 민중권력당의 후지모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좌파 성향의 다른 정당들이 카스티요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빈농 출신의 후보를 지지하는 농촌 지역의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후지모리 후보를 누르는 데 성공하였음.
- 카스티요 후보의 주요 공약은 신자유주의 노선 탈피,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강화, 부패 청산, 개헌 등으로 비수도권의 차상위층, 저소득층 및 원주민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었음. 반면 민중권력당의 후지모리 후보는 2016년 대선 및 총선을 이끈 유력 기성 정치인으로 친시장적 경제정책,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개혁, 강경한 치안정책 등을 표방하였으며, 수도권 및 서부 해안 지역의 중산층, 고소득층이 지지기반임.
- 대선 결선투표 결과는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 수정을 통한 빈곤 및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페루 유권자의 기대를 보여줌. 페루는 2000년대 들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음에도 차상위층,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더디게 향상되었으며, 계속되는 빈곤 문제와 소득분배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음. 코로나19의 여파로 빈곤 및 소득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신자유주의 경제모델 탈피와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카스티요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2018년 3월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오데브레히트(Odebrecht) 스캔들\*로 사임한 이후 대통령이 세 차례나 교체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등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정치개혁 및 반부패 어젠다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카스티요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중남미 대형 건설회사인 브라질 오데브레히트(Odebrecht)사가 자국의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를 매개로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고위급 관료·정치인 및 기업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

## 정치동향

### 파편화된 입법부와 대통령에 대한 거듭된 탄핵안 발의

- 대선 1차 투표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총 20개 정당 중 10개 정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전체 130석 중 카스티요 소속 정당인 자유페루당이 37석, 후지모리 후보의 소속 정당인 민중권력당이 24석을 각각 차지하였음.

[표 4] 2021년 6월 페루 총선 결과

정당 성향	정당별 의석	정당 성향별 의석
좌파	자유페루당 37석, 민중행동당 16석, 페루와함께당 5석	58석
우파	민중권력당 24석, 민중혁신당 13석, 국가전진당 7석, 페루가능당 5석	49석
중도	진보를위한연대당 15석, 우리페루당 5석, 자색당 3석	23석
총 합계		130석

- 원활한 국정운영과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해 의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거나, 원내 진입 정당들이 극도로 양극화·파편화되어 있어 많은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핵심 공약인 개혁은 추진하더라도 다른 좌파 및 중도 성향의 정당과의 공조를 위해 전략산업 국유화와 급진적인 정치개혁 등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7월 28일 새 정부 출범 이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세 명의 총리와 20명의 각료가 물러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의회 내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한 카스티요 정부는 장관급 인사에 대한 야권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방어하지 못하고 있으며, 3명의 총리가 갖은 의혹과 압력에 줄지어 사퇴하였음. 2022년 2월 9일, 카스티요 대통령은 법무인권부 장관인 아니발 토레스를 네 번째 총리로 임명함.
- 카스티요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25일 대통령과 측근들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의혹 등에 따른 도덕적 무능을 이유로 야당 의원 28명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되는 사태를 맞이하였음. 카스티요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일인 12월 7일 직전까지 중도 및 좌파 정당 관계자를 만나 반대표 결집을 위한 지지를 호소한 결과 찬성 46표, 반대 76표, 기권 4표로 탄핵 절차는 불발되었음.
- \*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총 의원 수 130명의 40%인 52명,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인 8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
- 2022년 3월 8일 야당 의원 50명은 대통령을 둘러싼 수많은 부패 의혹을 거론하며 지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로 또다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였으나 3월 28일 투표 결과 찬성 55표, 반대 54표, 기권 19표로 탄핵안은 부결되었음. 한편, 거듭된 내각 구성 실패와 정정 불안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EIU는 2002년 4월 페루에 대한 Country Report를 통해 카스티요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 낮은 지지율, 정부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 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야당의 비판 및 의회와 협력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가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사회동향

###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만연

- 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다양한 광물자원, 젊고 풍부한 노동력, 유리한 입지조건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 이슈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1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서 페루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105위에 그쳤음. 이는 칠레(27위), 콜롬비아(87위), 아르헨티나(96위) 등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임.
- 2016년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오데브레히트사가 2015~14년 중 페루 공직자들에게 29백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톨레도(2001~06년), 가르시아(2006~11년, 체포 직전 자살), 우말라(2011~16년), 쿠친스키(2016~18년) 등 전직 대통령 4명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
- 작년 대선 결선투표에 오른 후지모리 후보 또한 2011년 대선 당시 오데브레히트사로부터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된 바 있음.
- 페루 정부는 반부패 계획(2018~21년)을 통해 부패 척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18년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연임 금지, 정치자금법 개혁, 사법위원회 개혁 등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IMF는 2021년 Staff Report에서 사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00여 개 공공기관 내 윤리감독기구 설치 등의 부패 척결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음. 한편, 전직 대통령 10명 중 7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페루의 정치지형에서 좌파 성향의 카스티요 대통령은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하였으나 작년 11월에는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며 탄핵이 발의됨.

### 광산, 에너지 개발 반대 등 시위 발생

- 페루는 광산 및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파생되는 토지 보상, 거주민 이전 문제, 환경파괴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 근로자 파업 등이 빈발하면서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6~17년 중 페루의 최대 구리 생산회사 중 하나인 라스 밤바스(Las Bambas)의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7월에도 동사에 경제적 혜택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공격이 이어졌음.
- 한편, 2022년 3월에는 페루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인 쿠아존(Cuajone) 광산의 조업이 2주 넘게 중단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은 광산이 지역경제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채굴에 이용되는 수로와 철도를 봉쇄한 바 있음.



## 사회동향

### 코카인 등 불법 마약거래로 인한 치안 불안 가능성 상존

- 페루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주변국에 비해 갱단을 중심으로 한 조직범죄 위협은 크지 않은 편임. 단, 페루(재배면적 6.2만 헥타르)는 콜롬비아(14.3만 헥타르), 볼리비아(2.9만 헥타르)와 함께 중남미 3대 코카인 생산지로, 아푸리막 강, 에네 강, 만타로 강 계곡지역(“VRAEM”)을 중심으로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coca)의 불법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반정부 사회주의 조직인 ‘빛나는 길’(Shining Path)과 연계되어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2019년)에서 전체 141개 평가대상국 중 테러 발생 순위 92위, 인구 10만 명 당 살인율 108위에 해당하는 등 범죄 피해 관련 세부순위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이에 페루 정부는 코카 경작면적 축소, 대체 작물(코코아, 커피, 팜유 등) 경작 지원 등 코카 재배 근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시민들의 항의 시위 격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연료와 비료 가격 급등 등으로 2022년 3월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이 6.82%에 달하면서 농민과 운전기사들이 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도 리마로 향하는 주요 고속 도로를 막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등 시위가 발생하였음. 시위대가 톨게이트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과 유혈 충돌하면서 6명이 숨지는 등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함.
- 정부는 4월 5일 수도 리마와 주요 도시에 통행금지령과 비상조치를 기습 발령하였으나,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야당이 불법이라며 반발하자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취소하였음. 한편,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고 기본 식품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1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나 시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임.

## 국제관계

###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

- 페루는 중남미에서 경제가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조속한 편입을 위해 전 세계 50개국 이상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EFTA, 캐나다, 태국, 멕시코, 칠레,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 페루는 미국(2009년), 중국(2009년), 한국(2011년)\*, EU(2012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하여 경제협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 터키, 엘살바도르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아울러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등 32개국과 양자간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하였음.

\* 페루는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남미 내 두 번째 FTA 체결국으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페루의 제4위 수출대상국이자 제11위의 수입대상국임.

- 중남미 내에서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안데스공동체(CAN) 등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통합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2012년)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중남미 총 GDP의 약 40%를 차지하며, 역내 재화, 서비스, 복지,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도모, 회원국 간 균형적인 경제성장 도모, 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정치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현재 싱가포르가 2022년 1월 준회원국(태평양동맹과 양자 FTA 체결을 의미)으로 가입하였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우리나라는 준회원국 가입 교섭을 진행 중이며, 에콰도르는 정회원국 가입을 준비 중임.

- 안데스공동체(1996년)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4개국이 참여하며 회원국 간 일반관세를 철폐하고 2004년부터 대외 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한편, 페루는 1998년부터 APEC 포럼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참여하는 등 중남미 지역을 넘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1개국

##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비율은 미미

- 페루는 1980년대 중남미 외채 위기 당시를 포함하여 1996년까지 파리클럽과 총 8번의 채무재조정(총 149.3억 달러)을 실시하였음. 단, 2005년(20억 달러) 및 2007년(25억 달러)에 파리클럽 채무를 조기상환하면서 글로벌 채권자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2021년 4월 현재 채무재조정 잔액은 전액 상환한 상태임.
- 2021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지원잔액 50.3억 달러(단기 16.9억 달러, 중장기 33.4억 달러)\* 중 연체잔액은 1.3백만 달러(연체비율 0.03%)에 불과함.
- \* 스페인(17.6억 달러), 캐나다(17.3억 달러), 이탈리아(10.8억 달러) 등 16개 ECA 지원 중
- 한편, 미 수은, 독일 Hermes, 영국 UKEF 등 주요 ECA들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 모두 원칙적으로 인수 가능하며, 영국 UKEF의 경우에는 중장기 자금에 대해 현지화 인수도 취급 가능하다는 입장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1.10)	3등급 (2020.10)
Moody's	Baa1 (2021.09)	A3 (2014.07)
Fitch	BBB (2021.10)	BBB+ (2020.12)

### OECD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등급 유지

- OECD는 2008년 페루의 높은 경제성장세, 교역상대국 다변화, FDI 유입 증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 3사도 2008~09년부터 투자적격등급 부여, 최근 등급 하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08~09년부터 페루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페루에 대한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는 2021년 9월 페루의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로 한 등급 하향 조정하면서, 지속되는 정치적 양극화와 파편화된 정치환경이 정치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정부의 정책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였음. 다만 중앙은행 등 경제 관련 부처의 독립적인 정책 운용, 재정특별법 등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 금융산업 안정성, FTA를 통해 확보한 다변화된 교역시장 등이 페루의 거시경제안정성을 담보한다고 설명하면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부여함.

## 국제시장평가

- 2020년 12월 Fitch는 페루의 신용등급(BBB+) 전망을 종전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2021년 10월에는 신용등급을 BBB로 한 등급 낮추었음. 이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 카스티요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정정 불안과 이에 따라 경제정책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 점 등을 반영한 것임.

- 페루는 중남미 국가 평균 대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정부의 친시장정책 기조, 재정특별법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중앙은행 등 경제부처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거시경제 운용 등에 힘입어 글로벌 투자신인도를 제고하고 외국인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왔음.
- 2021년에는 전년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2020년 경제성장률 -11%), 원자재 국제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은 수출 증가 등으로 13.3%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2022년에는 정정 불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전년도와 같이 높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광업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인해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및 다국적 기업의 과실송금 규모 등에 의해 경상수지가 좌우되고 있음. 단, 정부의 채무부담이 낮은 편이며,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해외 차입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월평균 수입액의 11.9개월(2021년)에 달하는 풍부한 외환 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외화 유동성 위험은 제한적임.
- 다양한 광물자원 및 관광자원, 풍부한 노동력 및 유리한 입지조건,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 등은 페루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단, 부정부패 만연, 치안 불안, 시위 등 소요 사태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가 잠재하는 가운데, 2021년 7월에 취임한 현 대통령에 대해 2차례의 탄핵안이 발의되는 등 정정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정치 안정화, 부패 척결 노력,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운용 등이 페루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